



배희숙 | 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자 개인인물과 그가 활동한 시대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사 1:1; 렘 1:1 등 참고). 따라서 하박국의 저작 시기는 히스기야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제안되고 있다. 두 개(1-2장과 3장)의 상이한 표제, 그리고 1-2장에 반영된 이중의 시대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양식적, 내용적 특징들 때문에 적어도 하박국서의 기록 시기를 특정한 해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예언자의 탄원(1:2-4와 1:12-17)과 각 탄원에 대한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1:5-11과 2:2-19)으로 이루어진 1-2장의 구조와 다양한 장르의 혼합은 하박국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형성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본고는 하박국 1장과 2장의 형성과정과

배경을 통시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하박국서의 형성사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먼저 하박국서 형성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들을 소개하고 검토한 후(Ⅱ), 1장과 2장에 대한 필자의 장별 분석(Ⅲ)을 통해 하박국서의 저작과 편집의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 2. 하박국서 형성 가설 개관

### 1) 연구사 개관

#### (1) 예레미야스(J. Jeremias)

예레미야스는 ‘이스라엘의 후기 왕정 시대에 나타난 제의예언과 심판 선포’에 관한 글에서 하박국이 제의예언자이었던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에게 논의의 출발점은 2장 6b-20절의 ‘화있을진저’ 말씀이다. 이 단락의 말씀을 분석한 후 예레미야스는 “포로기 후기에 하박국의 전체 저주말씀이 재해석되었다.”<sup>1)</sup>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에 기초하여 그는 보충가설을 수립하였다.

① 예레미야스는 1장 2-4절과 1장 12, 13절, 그리고 1장 5-11절과 1장 14-17절을 독립된 문학단위로 간주한다.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1장 5-11, 14-17절에 있는 심판말씀의 수신자는 유다의 권력자들이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화와 악인들의 멸망에 사용되는 징벌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야훼의 심판행위를 수행할 것이다. 예레미야스는 2장 4절은 야훼의 심판행위에서의 생존이나 멸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바벨론 사람이 야훼의 심판도구로서 임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3장이다. 3장에

---

1) J. Jeremias,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WMANT: Neukirchen-Vluyn, 1970), 67.

따르면 야훼는 억압받는 백성을 돕기 위해(13a $\alpha$  절) 그리고 악인을 멸하기 위해(13b-15, 16b절) 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구인 바벨론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실현된다.<sup>2)</sup> 그에 따르면 예언자는 가상의 악행에 관한, 이미 존재한 지혜의 말씀들(6b, 9a, 10a, 10b $\beta$ , 12, 15a, 16a $\alpha$  절)에다 각각 ‘화있을진저’를 갖추어 이스라엘의 내부 집단에게 직접 심판을 선포한다.<sup>3)</sup> 하박국이 예루살렘의 지도층에게 쏟아 붓는 ‘화있을진저’의 말씀들은 6b, 7, 9, 10a, 10b $\beta$ , 11, 12, 15-16, 19a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스는 하박국의 메시지의 연대를 바벨론의 군대가 처음 공격해 들어올 때인 주전 602/1년으로 추정한다(왕하 24:1-2). 예레미야스는 늦어도 주전 598/7년의 예루살렘 포위를 말씀 선포의 하한선(terminus ad quem)으로, 니스웨 멸망인 612년을 분명한 상한선(terminus a quo)으로 여기면서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605년, 여호야김 통치 초, 중기의 가능성도 고려에 넣는다.<sup>4)</sup>

② 예레미야스는 유다 왕국내부의 폐해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하박국의 ‘화있을진저 말씀’이 포로기 후반기에 반(反) 바벨론의 성격으로 재해석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화있을진저 말씀’들은 현재의 예술적인 구조를 띠고 도입구절(6a절)을 갖추며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스는 2장 8, 10b $\alpha$ , 13, 14, 17, 19b, 18절을 후기포로기의 재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여기서 그는 2장 5b $\beta$ , 6a, 20절을 편집적인 고리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포로시대의 재해석(자)은 1장 12-13절과 14-17절을 바벨론의 영향에 대한 탄식으로 해석하였고, 5-11절을 그들에 대한 심판선포로 이해하였다.<sup>5)</sup>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의미에서 ‘악인’에 대한 탄식들은 이제

2) 윗글, 85.

3) 윗글, 75.

4) 윗글, 89.

5) 윗글, 81.

부터 바벨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기본층은 1장 2-4, 12, 13절; 5-11, 14-17절; 2장 1-3, 4-5abx 절; 2 장 6b-19a\*절; 3장 2-19절이다. 이 기본층은 이스라엘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선포를 내용으로 한다. 현재의 예전적 형태는 나중에 포로기의 손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후기포로기의 새로운 해석은 본래 이스라엘의 악인을 향했던 선포를 재해석한 것이다. 예레미야스는 1장 2-4, 12-13절과 3장 2-19절을 양식사적으로는 개인탄원시로, 내용적으로는 백성탄원시로, 그러니까 예언자가 백성을 대표하여 아훼 앞에 가져온 백성의 탄식으로 간주한다.<sup>6)</sup> 예레미야스의 연구는 하박국이 제의예언자였다는 결과를 부산물로 낳았다.

## (2) 루돌프(W. Rudolf)

루돌프는 하박국서의 지속적인 성장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데 두드러진다. 그는 하박국서 전체를 문학적으로 통일된 작품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를 예언자에 의해 저작된 책 통째로 읽기를 시도한다.<sup>7)</sup> 루돌프는 하박국이 기도자로(1:2-4, 17; 2:1; 3:2, 18-19), 또 환상가로(2:1; 3:3-16a) 나타나며, 백성의 종교적 관습은 기도와 환상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장 6a절, 2장 13a, 14절, 2장 17b절과 예전적인 부분을 제외한 두 개의 첫 번째 말씀(2:19b; 3:6b, 17)을 추가된 것으로 돌린다.<sup>8)</sup>

루돌프에 따르면 하박국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2장 4, 5절이 책 전체의 중심을 차지한다.<sup>9)</sup> 첫 번째 부분에서 루돌프는 통일된 관

6) 윗글, 99.

7) W. Rudolf, *Micha-Nahum-Habakuk-Zephania* (Gütersloh: Gütersloher, 1975), 191-251.

8) 이 외에도 위치전환(3:14b), 추측(2:4, 5, 18; 3:7, 14b, 16b), 새로운 번역(3:4)을 시도한다.

9) W. Rudolf, 윗글, 249.

점을 발견한다(1:2-4; 1:5-11; 1:12-17; 2:1-5). 단어들을 통해 루돌프는 탄식(1:2-4)을 요시아의 죽음(609년) 이후에 해당될 수 있는 유다의 내부 상황들과 연관 시킨다. 그에 따르면 1장 5-11절에서 하박국이 보통의 제의 탄원시에서와는 달리 직접 회답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박국에게 예언자로 불릴 자격을 부여해준다. 또한 문제가 되는 5절의 2인칭 복수의 화법형태는 루돌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본문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참석을 암시하는 것이다. 루돌프에게 하박국은 두 번째 선포인 1장 12-17절에서 예레미야(렘 27:6이하)와 구별된다.

루돌프에게 2장 4절은 1장 2-4절에 대한 응답으로서 중심을 차지하며,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 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가 징벌을 받는 반면, 의인은 갈대아인을 통해 실현된 고난의 시간 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sup>10)</sup> 동시에 5절의 이러한 보편적인 기본문장은 갈대아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는 5bβ, 6a절을 편집적인 삽입으로 간주하고, 13b, 14, 8b, 17b, 19b절은 주기(朱記)로 보았다.<sup>11)</sup>

예전적인 지시를<sup>12)</sup> 근거로 루돌프는 하박국 3장이 언젠가는 예배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부록을 후대의 추가로 인정하지만, 3장이 원래부터 제의를 위해 규정되었으며 본래 그 자체로 존재하였고 또 하박국에게서 전혀 기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는 반대한다.<sup>13)</sup> 루돌프에 따르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백성의 곤경에서 끊임없이 위로하는 중간부분(3-15절)은 예배에서의 사용을 위해 따로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루돌프는 하박국이 이미 16절에서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10) 윗글, 216쪽. 루돌프는 4a절을 번역할 때  $\text{הַלְלָהּ}$ (우펠라)를 사 65:7과 시 109:20의 의미로  $\text{הַלְלָהּ}$ (페올라)로 읽어야 하며 그 뒤에  $\text{הַלְלָהּ}$ (로아쉐라)의  $\text{הַלְלָהּ}$ (라이쉬)나  $\text{הַלְלָהּ}$ (라이쉬)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213쪽 참고.

11) W. Rudolf, 윗글, 223쪽.

12) 독자적인 표제, 3, 9, 13절의 '셀라', 19b절의 예전적인 주(註)를 말한다.

13) W. Rudolf, 윗글, 240쪽.

하박국이 공동체노래로 재해석한 책임자라고 본다. 이를 통해 예언자를 칭하는 ‘나’ (2, 16, 18/19절)는 집합적으로 이해되었다.<sup>14)</sup> 루돌프는 17절을 삼입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본문은 대적의 근경 속에서 하는 기도로, 그 뿐만 아니라 흉작과 짐승의 죽음에서 하는 기도로도 사용되었다.<sup>15)</sup> 루돌프는 3장 표제에 있는 ‘기도’는 2절과 16b, 18-19절에만 적합하다고 본다. 그에 반해 3장 3-15절은 예언자의 환상이며, 여기서는 악인의 멸망이 이중의 그림으로(8-12; 13-15절) 묘사되어 있다. 이로써 예언자는 그의 백성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도움을 약속한다. 루돌프는 하박국서를 605년 이듬해의 것으로 연대를 설정하였다.

### (3) 자이볼트(K. Seybold)

자이볼트에게서 하박국서의 형성사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책에서 수행한 분석은 1950년 슈미트(H. Schmidt)가 세운 가설을 전제한다. 자이볼트가 재건한 하박국서의 기본층은 예언(A), 찬양시(B), 기도시(C)라는 세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① 자이볼트에 따르면 하박국 예언서는 1장 1절의 표제 다음에 기수(騎手) 환상(1:5-11, 14-17)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유다 안의 사회적 상황을 가리키는 명판 환상(2:1-3, 5-19)이 추가된다. 그에 따르면 하박국은 저주 말씀에서 나타나는 폐해들이 유다사회를 치명적인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예언자는 유다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 기수환상을 파괴된 사회에 관한 환상 옆에 세워놓는다.<sup>16)</sup> 이 예언을 자이볼트는 앗수르 시대 말기 약 630년으로 정한다.

14) 윗글, 241쪽.

15) 윗글, 240쪽.

16) K. Seybold, *Nahum Habakuk Zephanja* (ZB; Zürich: Theol. Verl, 1991), 47.

② 자이볼트는 예언자에 의해 직접 기록되고 세워진 명판(2:2-3)이 초본문으로서 예언 전승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sup>17)</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550년경 후기바벨론 시대에 하박국의 예언은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책으로 저작되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에 직면하자 이 명판의 전승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대의 세계적인 변화는 다름 아닌 예언자의 옛 환상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sup>18)</sup> 이를 위해 그들은 하박국의 예언들을 갈대아인과 관련시켜서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 책은 바벨론 대제국의 멸망이 오래전에 결정된 일임을 말해주는 ‘증거문서’(Schriftbeweis)가 되었다.<sup>19)</sup> 이 문서는 1장 5절을 소급 지시하는 3장 2절과 16절로 끝난다고 한다. 또한 자이볼트는 전승자들이 하박국의 명판과 함께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찬양으로 이루어진 본문 3장 3-15절을 예언자의 기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두 환상은 550년경에 틀어 되는 3장 2절과 16절을 통해 찬양시인 3장 3-7절과 3장 8-13a, 15절과 결합되었다.<sup>20)</sup>

③ 마지막 형성단계를 위하여 자이볼트는 슈미트(H. Schmidt)의 모델을 사용한다.<sup>21)</sup> 슈미트에 따라 자이볼트가 재건한 시편기도(Psalmengebet)는 1장 2-4, 12-13절; 2장 1\*, 4, 20절; 3장 7\*, 8\*, 13b-14, 17-19절을 포함하며, 이것은 본래 개인탄원시요 개인감사시로, 또한 고소당하였다가 무죄

17) 윗글, 44-45.

18) 윗글, 48.

19) 윗글, 48.

20) K. Koenen, *Heil den Gerechten – Unheil den Sündern! Ein Beitrag zur Theologie der Prophetenbücher* (BZAW 229; Berlin: de Gruyter, 1994), 141.

21) H. Schmidt, “Ein Psalm im Buche Habakuk”, ZAW 62 (1950), 52-63. 슈미트는 1: 2-4, 12-12; 3: 18-19를 개인탄식기도로 칭한다. 그에 따르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과 ‘나의 반석’이라는 호칭, 특히 제 사장의 구원신탁으로서의 *נִבְיָא לְנָחֻם* (로 나무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증거 해준다. 13절은 횡방하는 고소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보도한다. 그에 따르면 예언자 하박국의 책과 본래 전혀 관계가 없던 이 시는 옛 하박국 두루마리의 난외에 쓰였으며 예언서 본문과 결합되었다.

판결을 받은 자의 기도로<sup>22)</sup>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편집자는 한 시인이 신적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기록한 본문을 기존해있던 것과 연결시키는 수고를 하였다. 위로의 책에 비유적인 부분이 덧붙여 짐으로써 하박국은 철저히 ‘탄원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자이볼트는 시편기도가 형성된 자리를 포로기 이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린다.

자이볼트는 하박국 예언(A)과 포로기 위로서(B)와 찬양과 틀을 이루는 기도(C)의 모든 화자는 질문과 응답이라는 대화식의 형태로 법과 정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화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 2) 방법론적 고찰

(1) 앞에서 살펴 본대로 하박국서의 기본 형태에 대한 질문은 주석가들마다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소개한 연구사개관은 포로기전 후기시대의 유다의 고위층에 대한 예언자 하박국의 고발이 바벨론에 대한 정치적 고발로 변경되었다는 견해가 보편성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결정적인 차이는 첫 번째 탄식의 귀속 문제에 있다. 따라서 하박국서 형성에 대한 연구의 주요과제는 하박국서의 첫째 단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누가 악인이며 의인이냐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며, 또 예언자가 어떤 폐해를 고발하고 누구에게 심판을 선포하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첫 번째 단위의 평가에 대한 이 질문은 그러므로 아래 주석적인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하박국서에 대한 연구사 개관에서 지속적으로 1장과 2장과 3장의 소

---

22) K. Seybold, *윗글*, 44.

23) 참고, W. Dietrich, “Habakuk – ein Jesajaschüler”, K.-D., Schunck, *Nachdenken über Israel. Bibel und Theologie* (BEATAJ 37, Frankfurt am Main, 1994), 206.

속관계가 언급되고 있다. 이 질문은 ‘예언자 하박국이 본 경고’ (1:1)와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3:1)라는 두 개의 표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하박국서는 저자를 기도자요 시인이요 레위인 가수로(3:19), 또 탄식하는자와 예언자로 그리고 있다. 특히 쿠파의 하박국 주해서(IQpHab)에서 1장과 2장만이 주석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들은 서로 갈라진다.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적어도 하박국서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본고는 지면관계상 1장과 2장에 한정하여 이들의 개연성 있는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장과 3장과의 관계는 다음 과제로 미루어 둘 것이다.

### 3. 본문 분석

#### 1) 장별 분석

##### (1) 하박국 1장

① 1장 1절은 “언제까지”(אֵימָנָה אֲדָאנָה) 아드아나라는 여는 말로 시작된다. 이 말은 원치 않는, 참을 수 없는 비관을 드러내고 있다.<sup>24)</sup> 이와 함께 “폭행!”(חָמָה 하마스)이라고 외치는 비명은 지속적인 심각한 위기를 알려준다. 1장 2절에서 <하마스>의 특징을 이루는 상황은 1장 3절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들, 즉 ‘불행’ (אָנָּה 아벤)과 ‘재앙’ (עָמָל 아말), ‘억압’ (שָׁט שט)과 ‘폭행’ (חָמָה 하마스), ‘다툼’ (רִיב 리브)과 ‘분쟁’ (מָדוֹן 마돈)으로 묘사된다.<sup>25)</sup> 각각의 단어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유대 내부적으로 생겨난 것이든 이방민족들로 인해 야기된 것이든 사회적 위

24) E. Jeni, “חָמָה”, *THAT* 1 (1971), 934.

25) 각 단어의 우리말 번역은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34-40쪽을 따르기로 한다.

기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sup>26)</sup> 전체적으로 2-4절은 ‘토라’(תּוֹרָה)가 마비되어 있고, ‘미쉬파트’(מִשְׁפָּט)이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는 어두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첸(J. G. Janzen)에 따르면 ‘힘을 잃고 약해짐으로 인한 활동의 중단과 절망’을 말하는 동사 תָּפַח(타푸그/느슨해지다)와 관련시켜볼 때(시 77:3; 창 45:26; 애 2:18; 3:49), <토라>는 문서로 된 토라자체를 말한다.<sup>27)</sup> 그리하여 ‘토라의 느슨해짐’이라는 표현은 기능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sup>28)</sup> 또 נָצַח(라네차흐/계속)는 ‘미쉬파트’의 효력에 대해 말한다.<sup>29)</sup> 결론적으로 ‘토라’와 ‘미쉬파트’은 특정한 문서와 관련된다.

1장 13b절과 2장 4b절의 정관사 없는 קִיָּק(차딕/의인)과는 달리 한정된 형태(קִיָּק הַחֲצִידִק)를 보여주는 1장 4b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박국 연구에서 그리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구약에서 관사를 지닌 형태 קִיָּק הַחֲצִידִק(하차딕)은 여섯 번 나타나며 모두 다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를 선언 받은 자를 의미한다.<sup>30)</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사를 가진 모든 경우는 특정인을 지시한다. 1장 12b절에 따르면 이 의인은 ‘정의’(מִשְׁפָּט 미쉬파트)와 ‘판결’(הוֹכִיחַ 호키아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동사 ‘판결하다’의 어근인 הִכַּח는 שָׁפַט와 평행으로 나타난다(사 2:4; 11:3-4).<sup>31)</sup>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자로 왕을 생각할 수 있다.<sup>32)</sup> 예컨대, 요셉(창 41:51), 야훼의 종(사 53:11), 예레미야(렘 20:18)와 같이 특별한 과제를 위해 선택

26) A. Scharf,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s* (BZAW 260; Berlin: de Gruyter, 1998), 244-45쪽은 두 개의 찬양시인 나훔 1:2-8과 합 3:3-15의 편집적인 순서를 근거로 1:2-40이 나훔의 직접적인 후속으로서 앗수르인에 의한 이스라엘의 억압을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27) J. G. “Janzen, Eschatological Symbol and Existence in Habakkuk”, *CBQ* 44 (1982), 399.

28) M. D. Johnson, “The Paralysis of Torah in Habakkuk 1,4”, *VT* 35 (1985), 259.

29) J. G. Janzen, “Eschatological Symbol and Existence in Habakkuk”, *CBQ* 44 (1982), 399-400.

30) 출 9:27 (야훼가 파라오에 대하여); 신 25:1; 사 57:1; 겔 18:20; 33:12; 전 3:17.

31) G. Meyer, “הִכַּח”, *ThWAT* III (1982), 621.

32) J. Jeremias는 접미어를 3장 13a절의 왕으로 관련시킨다.

된 사람의 고난이 עָנָל(아말)로 칭해진다는<sup>33)</sup>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의인은 다름 아닌 신명기 역사가가 의인으로 평가하는(왕하 23:25) 요시야 왕임을 시사해준다. 이에 덧붙여 רָשָׁע(라샤/악인)는 비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고위층에 속한 자와 동일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레미야와의 비교는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רְשָׁעִים(르샤임/악인들)이라 불리는 탐욕적이고 연대하지 않는 부자들을 증거하고 있고(렘 5: 26)<sup>34)</sup> 이 단어로써 그들을 문제 집단으로 선언한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문서로 된 ‘야훼의 토라’(תּוֹרַת יְהוָה 8:8)와 ‘야훼의 미쉬파트’(מִשְׁפָּט יְהוָה) 미쉬파트 아웨, 8:7; 5:4-5)에 대해서 증거하며 이로써 신명기를 의미한다.<sup>35)</sup> 따라서 이 탄식이 신명기개혁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개혁의 어떤 면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혀 전혀 시행될 수 없었으며(1:4a) 개혁의 또 다른 면은 참여집단의 서로 다른 개별적인 이익에 따라 시행되었다(1:4b)는 인상을 받는다. 신명기개혁이 토라를 기초로 관철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때 탄식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5-11절의 삽입으로 인해 중단된 탄식은 12-13절에서 계속된다. 1장 13b α 절에서 בּוֹנֵי־ים(보게덤/못된 놈)은 רָשָׁע(라샤/악인)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בּוֹנֵי는 규범과 법질서와 공동체신뢰에 견주어 평가된다.<sup>36)</sup> 따라서 이것은 유다 사회 안의 상황을 말한다. 이것으로써 탄식하는 자는 4절의 악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준다. 다시 그는 평행대구법을 도입하여 자신의 탄식을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두 단락(3-4절과 12-13절)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 게다가 어법상의 일치도 두루 관찰된다. 그러

33) B. Otzen, “עָנָל”, *ThWAT* IV (1989), 217.

34)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 (GAT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364.

35) 윗글, 311.

므로 1장 3-4절과 12-13절은 본래의 단위를 이루며 요시아 왕 시대의 유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1절의 야훼에 대한 호칭 **יְיָ**(추르/거룩한 이)는 신명기에서의 호칭(신 32:4, 15, 31)을 연상시킨다. 이 탄식은 개혁이 추진된 주전 622-609년의 시기에 속할 것이다. 이것은 교차대구법의 구조로 다음과 같은 모양을 띤다.<sup>37)</sup>

(a) 2절 언제까지 야훼시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렵니까?

내가 당신께 '폭행' 이라 외쳐도 듣지 아니하시렵니까?

(b) 3절 어찌하여 제가 불행을 보게 하십니까? 재앙을 바라보기만 하십니까?

파멸과 폭행이 제 앞에 있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sup>38)</sup>

(c) 4a절 그러므로 가르침이 느슨해지고 계속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d) 4b절 실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비틀려나옵니다.

(d) 12a절 당신은 오래전부터 야훼시여, 내 하나님, 내 거룩하신

이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sup>39)</sup>

(c) 12b절 야훼시여, 정의를 위하여 당신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를 정하셨습니다.

(b) 13ab $\alpha$  절 나쁜 것을 보시기에는 눈이 너무 깨끗하셔서 재앙을 당신을 바라보실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못된 놈들을 바라보시고 가만 계십니까?

(a) 13b $\beta$  절 악인이 자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

36) M. A. Klopfenstein, "יְיָ", *THAT* 1 (1971), 263.

37) 번역된 본문은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구약사상문고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을 따른다.

38) 이것은 주기로 보인다. 2절, 3절의 외우연속법과 3+2의 운율이 양식을 중단시키기 때문이다.

39) יְיָ נָמוּג (로 나무그)는 서기관이 수정한 것(tiqune sopherim)이긴 하지만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로서 본래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도식에서 드러나듯이 탄식은 구조의 중앙(d-d)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중심부에서 의인(יְיָ הָאֱלֹהִים 핫차디)과 야훼(יהוה)는 대별된다. (a)와 (a)에서 탄식하는 이의 외침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침묵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b)에서 여러 단어로 설명된 상황들이 (b)에서는 명시적으로 ‘못된 놈들’을 중심으로 그 행위자가 제시된다. 탄식하는 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b)을 야훼의 눈앞에(b) 보여주면서 고발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아시라고 요구한다(c-c). 탄식은 탄식하는 자의 편에서(abcd) 하나님께로(dcba) 넘어가면서 수사적으로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본래 하나였던 탄식은 나중에 두 개로 나뉘었을 것이다.

② 현재의 문맥에서 1장 5-11절은 앞에 있는 탄식(1:2-4)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독특하게도 5절에서 2인칭 복수에게 말해진다. 동사 יִתְּנֶנּוּ יְיָ אֱלֹהֵינוּ(히탐메후 테마후/너희는 놀라라 또 놀라라)는 이사야 29장 9절을 기억하게 한다. 두 군데 모두 예언자의 말씀에 백성들의 눈이 멀어 대해 말한다. 6절은 이미 시작되었거나 또는 곧 임박한 바벨론의 행군을 암시한다. 또한 6절에서 시작되는 바벨론 사람에 대한 묘사는 갑자기 그 땅에 닥친 야훼의 심판의 날을 지시한다. 바벨론이 오는 목적은 9절에서 간단하게 ‘폭행’으로 특징지어진다. 1장 5-11절은 본래 일종의 심판묘사(Gerichtsschilderung)로서 선포일 것이다. 여기서 이 선포는 이사야 5장 26-29절과 예레미야 6장 22절 이하와 잘 연결된다.

그에 반해 14-17절에서 들이닥치는 이방민족은 그물을 던지는 고기잡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16절의 단어 ‘제사’와 ‘분향’은 제의행위를 기술한다. 이로써 14-17절은 9b절의 ‘모오다’와 11b절의 “자기의 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자”를 현재화하고 있다. 이렇게 갈대아인의 그물은 물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구요 동시에 신을 상징하기도 한다.<sup>40)</sup> 츠빅켈(W. Zwickel)의 연구에 따르면 갈대아인들은 유대인의 민간전

40) W. Zwickel, "Zu Habakuk 1,15f.", *BN* 38/39 (1987), 72.

승에서 고기잡이로 그려진다(렘 16:16).<sup>41)</sup> 하박국은 그의 세계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된 형상언어를 사용한다.<sup>42)</sup> 이것은, 2장 6a절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포된 조롱가를 전제하고 있듯이, 1장 14-17절에 이미 바벨론의 폭력에 대한 유다의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 점에서 14-17절은 5-11절과 다르다.

## (2) 하박국 2장

① 2장은 첫 단락의 경계를 구분 짓는 데서 이미 어려움을 제시한다. 5b β 절과 6a절은 새로운 청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문맥에서 분명히 도드라진다. 이 점에서 이 구절들은 추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5절은 4a절의 주석 또는 예언적 적용으로 보이며,<sup>43)</sup> 여기서 5a절의 **יְהוָה אֱלֹהֵינוּ**(베아포키/그러나 참으로)는 4a절과 5a절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점층적인 의미로 또한 순수하게 수사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44)</sup> 4a절만 주석함으로써, 5절은 그 말씀이 악인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2장 1-4절의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종결된 단위를 이룬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4절의 삼인칭 남성단수어미는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주석가들은 일련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a절은 만족할 만한 본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1장 2-4, 12, 13절에 대한 위의 분석에 따르면 2장 4절의 어미는 한정된 형태인 <하차딕>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4aα 절에서 단어를 달리 분리한다면, 4a β 절은 “그의 영혼이 그 안에서 바르느냐?”는 수사의문문이 된다. 긍정의 의미를 지닌 어떤 분사(필시 **לְעַלְמָא**(포알)일 것이다)가 본래는 4aα 절의

41) 윗글, 73.

42) 윗글, 74.

43) K. Koenen, *Hiel den Gerechten*, 159 참조.

44) W. Gesenius, **יְהוָה אֱלֹהֵינוּ**, 57.

도입단어 **קִינָה**(히네/보라) 바로 다음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그러나 현재 본문의 내용과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기형태는 그 중심에 ‘그 의인’이 있는 1장 2-4, 12, 13절의 하박국의 탄식에 어울린다.

2장 2절은 분명하게 1장 5-11절과 연관시키며, 그래서 1장 5-11절의 선포에 환상의 특징이 부여된다. ‘먼 눈’의 주제는 ‘쓰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2:3). 그러므로 예언자는 자신의 환상을 크고 또렷하게 하여 그것을 읽고 알 수 있게 하라는 임무를 받는다(2:2). 왜냐하면 1장 5bβ 절이 보여주듯이 누가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2장 6b-19절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예언자의 구체적인 탄식이 나온다. 여기서 문헌비평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인용하는 것은 본문들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은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b, 9, 12, 15, 19a절은 후기 포로기전 시대 유다 안의 고위층에 속한다(A). 그에 반해 7, 8a, 10bα, 13-14, 16-18, 19b절은 반바벨론 편집층에 속한다(B). 여기서 5bβ, 6a절은 편집적인 삽입으로 간주된다. 편집적인 흔적은 인위적인 구조에서 나타난다. 두 층이 서로 맞물려있으며 두 집단이 교대로 언급된다. 그들은 형상적이고 비유적인 격언으로 보편화되면서 서로 관계된다.<sup>45)</sup>

예언자의 사회비판에 속하는 (A)층에서 2장 4a절에서 교만하다는 야훼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예언자에 의해 2장 5abα 절에서 부(富)를 기만적으로 다루는 자로<sup>46)</sup>, 우쭐대는 자로 해석된다. 2장 5abα 절에 대한 예언자의 주석은 1장 5-11절의 이방민족선포를 특정 집단과 연관시킨다. 이를 통해 예언자는 유다의 고위층을 저주 말씀으로 질타한다. 악인은 담보권과 법

45) K.-M. Beyse, “קִינָה II”, *ThWAT* V (1986), 73.

46) 본문상 가장 어려운 2:5에 대하여 분명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문제가 많은 읽기형태 **קִינָה**(히야인)는 마소라, 타르굼, 불가타가 증거하고 있는데, 쿨란의 하박국 주석은 **קִינָה**으로 읽는다.

제도와 아랫사람의 예속을 비인간적이고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 다시 말해 부당한 담보와 금지된 대부금으로부터 폭리를 취함으로써 임대인을 억압하는 고리대금업자이다(2:6b, 7). 또 부당한 이익으로 높은 곳에 동지를 틀고 대들보가 삐걱거릴 때까지<sup>47)</sup> 그 집을 악행과 파렴치한 행위로 채우는 사람들, 행위의 결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2:9-11), 피로 성읍을 짓고, 불의로 별장을 강화하는 자들(2:12), 그들의 이웃에게 진노를 마시게 하며, 진노의 잔을 섞어 비틀거리는 잔을 마시게 하는 자들(2:15a, 16)이다. 여기서는 분명히 유다 내부의 상황을 다룬다. 동시에 이 집단은 비연대적인 일부 고위층을 의미한다. 이렇게 1장 5-11절에서 서술된 심판은 각각의 죄를 근거로 백성의 여러 집단에 대한 심판을 향하고 있다.

2장 6a절은 저주말씀을 민족들의 입에 두어 바벨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설교를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킨다. 5b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더 이상 심판의 수단이 아니라 저주말씀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준다. 이것은 2장 5bβ, 6a절이 편집적인 삽입임을 말해준다. (B)층은 바벨론의 폭력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조롱가의 형태로 그들에 대한 심판선포를 다룬다. 6a절은 **לִפְנֵי** (마살/빈정거리는 말)이라는 단어로써 이 조롱가가 본래는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던 것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바벨론인은 많은 백성들을 강탈하였고(7b, 8a절) 그로써 치욕을 꾀하였으며(10절), 피 흘린 것으로 성읍들을 건축하고(12절) 레바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였다(16절).

(B)층에서 예언자는 수사의문문으로 자신의 청자와 분명하게 소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시킨다. 여기서 예언자가 수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어떻게 목표선언과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가 첨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a, 7a, 13a절은 **הֲלוֹ** (할로)로 시작한다. 그래서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하고 이로써 나열된 행위

47) W. Dietrich, "Habakuk – ein Jesajaschüler", 206.

들은 더욱 용서할 수 없게 된다. 야훼의 개입은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사적인 유추를 통해 악인의 운명은 명료해진다. 편집적인 삽입(6a절)에 있는 대화의 요소들은 유다 안의 고위층을 심판했던 저주말씀을 반 바벨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7b절에서 <할로>는, 지혜문학에 있는 지혜잠언을 강하게 상기시켜주는 탈리오의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주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 질문양식 <할로>는 다시 13절에서 나타나며, 13b절은 거의 축자적으로 예레미야 51장 58b절을 인용하고, 14절은 이사야 11장 9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3인칭 복수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주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알맞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직접 청중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청중들로부터 민족들의 모든 행위의 무용성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 마지막 저주말씀에서 예언자는 **לִּיְהוָה** (할로)가 아니라 그 질문에 상응하는 **מָה** (마)로써 묻는다. 동시에 그는 바벨론의 우상제조사 또는 우상숭배를 주제로 삼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언자는 항상 수사적인 질문을 도구로 삼아 청중들의 동의를 얻는다. 우상제조사라는 새로운 주제로써 그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한다. 전체적으로 그는 민족들의 계획이 헛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넘어 바벨론의 업적이 불에 휩싸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2장 6a절이 편집적으로 추가될 때 대화의 요소들이 삽입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예언자는 다른 민족에 대항하고, 청중들은 언급된 이방민족에 대한 말씀을 점점 고양되는 감정으로 내적으로 동의를 하며 듣게 된다. 전체 저주말씀은 **נִשְׁמָה** (맛사/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위에서 분석한 본문은 탄식(1:2-4, 12, 13)과 응답(2:1, 4), 예언자의 선포(1:5-11)와 2장 5ab $\alpha$  절의 주석에 의한 저주말씀, 그리고 바벨론

에 대한 두 번째 탄식(1:14-17)과 2장 5bβ 절의 주석에 의한 저주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예언자 하박국이 본 환시”라는 표제가 말해 주듯이 그 자체로 종결된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박국 1장과 2장의 형성과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2) 1-2장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

### (1) 요시야 개혁 시대의 하박국서

위의 분석을 통해 가정한 하박국서의 기본구성요소는 탄식(1:2-4, 12, 13)과 하나님의 말씀(2:1, 4)이다. 이것은 요시야 개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탄식을 다룬다. 이로써 하박국은 요시야의 개혁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 원인은 하박국에 따르면 악인들이 의인과 의인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탄식에 대한 응답은 2장 4절의 한 마디로 주어진다. 이 구절은 의인과 의인들에 대한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אַמְנָא (애무나/믿음)는 ‘차덕’이나 ‘미쉬팻’처럼 자주 법과 정의의 개념으로 나타난다.<sup>48)</sup> 예레미야가 그의 사고 과정에서 성실성의 결핍에 대한 탄식으로 속고하고 있다는 것(렘 5:1; 7:28; 9:2)<sup>49)</sup>은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어느 정도 유사함을 인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자 하박국이 예레미야 이전에 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등장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2장 1절의 정보는 망대에 서 있는(겔 3:16-21; 33:1-9)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서 하박국이 성전과 연관되어있다는 인상을 준다.<sup>50)</sup> 그는 신명기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8) H. Wildberger, “אֲמֵנָה”, *THAT* 1 (1971), 198.

49) 윗글, 197.

50) M. A. Sweeney,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T* 41 (1991), 70.

## (2) 왕정 후기의 하박국서

이 단계에서 1장 5-11절과 2장 2절, 3절의 바벨론 신탁이 추가된다. 예언자는 1장 5-11절의 이방민족선포를 1장 2-4, 12, 13절의 탄식과 연관시킨다. 그는 바벨론의 등장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본래 무질서한 힘을 가진 대적들을 보내시는 분이다. 또한 예언자는 2장 4a절을 변경하여 더 이상 의인에 대한 언급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교조적인 문장의 형태로 대조대구법을 구성한다. 2장 4a절 전반절은 그러므로 악인을 가리킨다. 계속하여 하박국은 2장 4a절을 주석하고(2:5ab $\alpha$ ) 그로써 예루살렘의 고위층에 대한 저주말씀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2장 6b, 9, 10ab $\beta$ , 12, 15, 19a절이 속한다. 1장 5-11절에서 기술된 재판은 그러므로 개별 죄들을 근거로 하는 개별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의인에게 예언자는 구원을 선언한다. 이 주석으로부터 우리는 요시야의 '사회' 개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의 개혁이 많은 유다 고위층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51)</sup> 열왕기하 23장 26-27절에서 대대적인 제의개혁의 추진에 대해 길게 서술한 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결정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추측은 개연성이 있다.

이 층에서 언어유희가 눈에 띈다. 같은 단어가 다양한 함의에 따라 주어를 갖는다. 7절에서 명사 '미쉬팻'은 1장 4절에서와는 달리 '하마스'에 대한 평행개념으로 나타난다. 2장 6b절에 있는 אֵד מֵאֵד(아드 마타이/얼마나 더!)라는 짧은 질문<sup>52)</sup>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이 목소리는 긴장을 전체의 해결로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 고의로 지체되는 순간이다.

51)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348.

52) E. Jenni, "אֵד מֵאֵד", 934.

### (3) 포로기의 하박국서

세 번째 편집단계에서는 본문의 기본 상태가 반바벨론의 방식으로 손질된다. 이 수정과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가 형성된다. 이 손질의 결정적인 원인은 심판예언의 실현이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 부정되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도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1장 14-17절의 탄식이 삽입되었고, 이전에 교차 배열되었던 탄식이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 이를 통해 12b절은 5-11절의 갈대아인들과 새로운 연관을 맺는다. 전승된 본문은 이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야훼의 심판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대 성찰로 확장된다. 이때 4a절의 מַכְתִּיר (막티르/에워싸다)와 13b절의 כְּבַבְלָה (베발라/집어삼키다)는 편집자에게 여러 정치적 상황들과 지금까지보다 더 분명하게 관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하박국 1-2장은 탄식과 신탁이라는 이중의 순서로 구성된 것이다. 다른 한편, 편집은 기본층을 새로운 형태로 만듦으로써 앞서 있던 탄식을 발전시켰다. 편집자는 1장 12b절의 재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의 성취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해결하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토라가 정의가 통용되게 하고 불의를 규정해야 하지만(1:3aβ b-4),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1:7b, 9b, 11), 무죄한 자의 정당함을 보증해주지도 않는다(1:12b, 13b, 14-17).<sup>53)</sup> 이렇게 탄식은 요시아의 기본개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반대로 더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용어 ‘리브’와 ‘마돈’이 “역사적 현실이 ‘토라’의 약속과 나란히 놓일 때 일으킨 투쟁과 다툼을 암시한다.”<sup>54)</sup>면, 나중에 삽입된 1장 3bα 절의 ‘리브’는 개혁에 대한 논쟁을 암시해준다. 이 단계의 본문은 어느 정도 요시아 개혁에 대한 회의를 보여주고 있다. 존슨(M. D. Johnson)이 추측하듯이, 편집자는 “신

53) B. Peckam, *The Vision of Habakkuk, CBQ* 48 (1986), 636.

54) M. D. Johnson, "The Paralysis of Torah", 260.

명기 노선을 따른 요시야 개혁이 그 법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길을 마련한다.”<sup>55)</sup>고 믿었다가 환멸을 느낀 신명기사가였을 것이다.

나아가 예언자의 설교를 수정함으로써 또 다른 의도가 수행되었다. 예언자는 사람들 사이에 유포된 조롱구절들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필자는 2장 6a-8a, 10ba, 13, 14, 16, 18, 19b를 이 단계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2장 5bβ 절은 하나의 주석으로서 2장 6a절과 함께 분명히 편집적인 삽입이다. 이로써 유다 내부의 잘못에 대한 모든 저주말씀은 도입구가 된다. 맞물려 있는 이 저주말씀으로써 예언자는 한편으로는 포로공동체에게 훈계와 경고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종의 심판묘사를 겨냥하고 있다. 즉 편집층은 1장 1절의 표제와 반복적인 ‘탄식-신탁’의 순서로 구성된 이 책의 기초를 완성시켰다. 이러한 전승과정에서 하박국서는 ‘맛사’의 모양을 띠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저주말씀 전체가 포로시대에 하나의 위로의 책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로써 하박국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신탁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예언으로서 대적을 저주로 위협하였다. 아무런 문제없이 이 편집은 포로시대로 설정된다. 왜냐하면 저주말씀은 이미 시행된 유다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고 이로써 편집시기를 포로시대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 편집은 예언자의 심판선포에 있는 보편적 사상을 심화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박국서가 이 단계에서,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을 이방민족말씀에 있는 명백한 전쟁범죄, 만행, 민족들의 착취, 인권 경시, 하나님 창조물의 훼손, 우상과 신상 숭배와 동등한 단계에 들어서, 역으로 바벨론의 폭력행위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강탈과 약탈,

---

55) 윌클, 264.

집에 대한 부당한 이익착취, 성읍을 건축하기 위한 살인, 땅의 파괴와 똑 같은 단계에 들어서, 매우 의식적으로 윤리적인 선포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두 번째 탄식, 정확히 말해 인간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취급한다는 1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다.<sup>56)</sup> 이로써 탄식은 이웃민족들이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잘못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스라엘이 피해자라는 점은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욥 3:19 참고). 하박국은 더 보편적이고 신중심의 윤리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박국의 윤리는 더 이상 토라에 기초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박국서 처음부터 신명기개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시야 개혁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기초라는 것이 판명된다.

#### 4. 요약과 전망

지금까지 필자는 하박국 1장과 2장의 형성과정을 추적해보았다. 하박국 1-2장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예언자 하박국의 예언이 요시야 개혁 당시(1:2, 3, 4, 12, 13; 2:1, 4), 왕정후기(1:5-11; 2: 2, 3, 5ab $\alpha$  , 6b, 9, 12, 15, 19a), 그리고 포로기(1:1, 14-17; 2:5b $\beta$  , 7, 8a, 10b $\alpha$  , 13, 14, 16-18, 18b)를 거치면서 매 시대에 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고 재해석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박국 1-2장에 대한 형성사는 하나님 말씀을 고정된 말씀으로 화석화시키지 않고 과거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여 말씀을 늘 살 아있는 새로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일임을 가르쳐준다.

2장 18-20은 3장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3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1-2장과 3장과의 관계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변화하는 시대에

56) 루돌프에 따르면, 왕은 그의 백성을 대표하고 그의 완전한 존재유형에 집중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Rudolf, *Micha-Nahum-Habakkuk-Zephanja*, 217.

따른 하박국의 예언(1-2장)이 시공을 뛰어넘는 성전예배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하박국 예언의 또 다른 측면을 밝혀 주리라 기대된다.

## 5. 참고문헌

- 노세영,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 구조 그리고 신학”, 『教授論叢』 8 (1997), 33-54.
-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구약사상문고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이동수, “‘폭력’에 대한 야훼의 응답”, 동일저자, 『예언서연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64-277.
- 임동원, “하박국서의 문학적인 분석 : 구조와 주제적인 단어(Leitwort)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 4), 53-73.
-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GAT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Beyse, K.-M. “חֲבַקּוּק II”, *ThWAT V* (1986), 69-73.
- Dietrich, W., “Habakuk - ein Jesajaschüler”, Schunck, Klaus-Dietrich, *Nachdenken über Israel. Bibel und Theologie* (BEATAJ 37. Frankfurt am Main, 1994), 197-214.
- Gesenius, W. and F. Buhl,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Leipzig 1915/ Berlin 1962.
- Gunneweg, A. H. J., “Habakuk und das Problem des leidenden צַדִּיק”, *ZAW* 98 (1986), 400-415.
- Janzen, J. E., “Eschatological Symbol and Existence in Habakkuk”, *CBQ* 44 (1982), 394-414.
- Jenni, E., “חֲבַקּוּק”, *THAT I*(1971), 933-936.
- Jeremias, J.,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WMANT 35; Neukirchen-Vluyn, 1970).
- Jöcken, P., “War Habakuk ein Kultprophet?”, Fabry, H.-J.(ed.),

- Bausteine Biblischer Theologie* (BBB 50; Köln, 1977), 319–332.
- Johnson, M. D., “The Paralysis of Torah in Habakkuk 1,4”, *VT* 35 (1985), 257–266.
- Keller, C.-A., “Die Eigenart der Prophetie Habakuks”, *ZAW* 85 (1973), 156–167.
- Klopfenstein, M. A., “בנר”, *THAT* (1971), 261–264.
- Koch, F., “צדק”, *THAT* II (1995), 507–530.
- Koenen, K., *Heil den Gerechten – Unheil den Sündern! Ein Beitrag zur Theologie der Prophetenbücher* (BZAW 229; Berlin, 1994).
- Meyer, G., “יכרה”, *ThWAT* V (1982), 620–628.
- Müller, H.-P., “משא”, *ThWAT* V (1986), 20–25.
- Otto, E., “Die Stellung der Wehe-Worte in der Verkündigung des Propheten Habakuk”, *ZAW* 89 (1977), 73–107.
- \_\_\_\_\_, “Habakuk/Habakukbuch”, *TRE* XIV (1985), 300–306.
- \_\_\_\_\_, “The Theologie des Buches Habakuk”, *VT* 35 (1985), 274–295.
- Otzen, B., “עמול”, *ThWAT* VII (1993), 496–501.
- Peckham, B., “The Vision of Habakkuk”, *CBQ* 48 (1986), 617–636.
- Ringgren, H., “ריב”, *ThWAT* VII (1993), 496–501.
- Rudolf, W., *Micha–Nahum–Habakkuk–Zephanja* (Gütersloh, Gütersloher, 1975).
- Schart, A.,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s* (BZAW 260; Berlin: de Gruyter, 1998).
- Schmidt, H., “Ein Psalm im Buche Habakuk”, *ZAW* 62 (1950), 52–63.
- Schwertner, S., “עמול”, *THAT* II (1995), 332–335.
- Seybold, K., *Nahum Habakuk Zephanja* (ZB; Zürich: Theol. Verl., 1991).
- Stoebe, H. J., “חמוס”, *THAT* I (1994), 583–587.
- Sweeny, M. A.,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T* 41 (1991) 63–83.
- Wildberger, H., “אמן”, *THAT* I (1971), 196–201.
- Zwickel, W., “Zu Habakuk 1,15f.”, *BN* 38/39 (1987) 72–74.

## 검색어

하박국

하박국 1-2장

하박국 형성사

화있을진저 말씀

반바벨론적 해석

##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Buches Habakuk

**Hee-Sook Bae,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Buches Habakuk. Die hier herausgearbeiteten Schichten von Hab. 1 und 2 folgendermassen zu ordnen. Das Habakukbuch in der Zeit der Josianischen Reform umfasst die Klage (1,2-4,12,13) und Gottes Antwort (2,1,4). Dabei geht es um die Klage über die soziale Verhältnisse in der Josia-Reform. In der spätvorexilischen Zeit zielt der Prophet Habakuk durch die Hinzufügung des Babylon-Orakels (1,5-22; 2,2,3) und mit der Auslegung und den Weheworten (2,5ab $\alpha$  .6b,9,12,15,19a) auf das

www.kci.go.kr

Gericht gegen Jerusalemer Oberschicht, dagegen sagt er den Gerechten Heil an. Im dritten Redaktionsstadium wird der Grundbestand des Textes antibabylonisch bearbeitet (1,14–17; 2,5b $\beta$  .7.8a.10b $\alpha$  .13.14.16–18.18b). Dieser Überarbeitungsvorgang bildet die jetzige Buchgestalt. So wird die Prophetie Habakuks jeweils nach den sozialen politischen Konstellationen erweitert und neuinterpretiert. Die Betrachtung der Prophetie Habakuks im Zusammenhang mit dem Kapitel 3 kann eine andere Aspekte im Licht stellen.

## Key words

Habakkuk

Habakkuk 1-2

Formation of Habakkuk

Woe oracles

Antibabylon-interpretation.

- 투고일: 2012년 10월 05일
- 심사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